

전자신문



▲ 2004년 9월 3일 전자신문 3면

최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된 '중소기업 기술지원대책'이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있어 우수 기술 벤처기업의 자금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디지털타임스



▲ 2004년 8월 31일 디지털타임스 1면

휴대폰 및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부품시장을 기반으로 고성장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벤처기업형 신흥 전문기업군이 기술경쟁력으로 국내 전자부품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제5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의욕을 고취하고, 혁신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제5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이 9월 7일부터 10일까지 COEX 대서양홀에서 개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막식에 참석 "지금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직접 점검하고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혁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기술로 승부하겠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기술개발에 앞장서는 중소기업 제품은 정부가 먼저 구매하고 적극 활용할 것이며, 나아가 제대로 된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기술력있는 기업이 곧 신용있는 기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 영예의 '기술혁신상' 대상에는 통신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해 통신망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하는 데 성공한 헤리트(대표 한미숙)가 수상했으며, 금상에는 메트로닉스(대표 김병균), 뉴로스(대표 김승우), 케이엠에스제약(대표 유병만)가, 은상에는 지스텍 등 5개사가, 동상에는 에이제이피코리아 등 11개사가 각각 수상했다.

벤처 M&A 역외펀드 첫 선

국내 벤처 인수합병(M&A) 펀드로는 처음으로 2500만달러(300억여원) 규모의 역외 펀드가 결성됐다. 9월 5일 중소기업청과 SL인베스트먼트(대표 이영수)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벤처 투자 회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SLi 5호 조합'을 결성, 7일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 이 펀드는 중기청과 펀드 운용사인 SL인베스트먼트가 각각 1000만달러와 250만달러, 싱가포르 정부가 1250만달러를 투자해 해외에 조성하며, 관리만 우리나라에서 하게된다. 이번 펀드는 국내 창투자 및 신기술 금융사 가운데 외자 벤처 M&A 펀드를 유치한 첫 사례다.

7년 간 운용될 이 펀드는 M&A를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창업 후 5년 이상이 된 성장단계의 벤처기업들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집중 투자될 예정이며 2년 간 연장할 수 있다. SL인베스트먼트 측은 개별 IT기업에 20억~30억원 규모로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거래소, 기술이전 성공사례집 발간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와 한국기술거래소(대표 연원석)는 기술 거래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술유통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기술 거래 및 사업화 사례를 발굴·소개한 '기술도 상품이다'라는 기술거래 및 사업화 성공사례집을 발간·소개한 '기술도 상품이다'라는 기술거래 및 사업화 성공사례집을 발간했다.

성공사례집에서는 한국기술거래소·기술거래기관 등의 중개를 통해 이뤄진 총 23건의 다양한 기술거래에 대해 ▲대기업의 기술을 라이선싱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사례 ▲해외 첨단기술을 도입해 성공한 사례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외국기술 투자를 유치한 사례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와 주요 사례별로 ▲왜 기술거래가 필요했고 ▲어떻게 기술거래가 이뤄졌으며 ▲거래 과정에서의 성공요소와 중개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세히 소개했다.

이 책자는 기술거래 성공사례뿐 아니라 기술거래 절차 등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해결과정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원하는 기업이나 업무담당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산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사례집은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http://kttc.or.kr>)에도 게재되어 있다.